





# 신천지 척결 지속적인 노력 다짐

“한기총과는 이단사이비 대책 함께 할 수 없다”

한교연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바른신앙수호위원회(위원장 황인찬 목사)는 지난 12일 오전 한교연 회의실에서 제 5-2차 회의를 열고 최근 집단적인 시위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를 척결하기 위해 회원교단들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기로 결의했다.

위원장 황인찬 목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신천지 신도들이 한국기독교연합회관과 CBS기독교방송 사옥 앞에서 ‘한기총 해체-CBS폐쇄’를 주장하며 집단시위와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한기총측에서 비공식적으로 공동대응을 요청해 왔다는 보고를 받고 한기총과는 이단사이비 대책을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바수위의 이날 결의는 한기총에 소속된 회원 교단들 중에 한교연 회원교단에서 신조 및 교리, 신학사상을 공유할 수 없는 교단들이 있어서 이단사이비 대책에 관한 부분은 함께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천지 대책에 관한 성명서 및 정부부처에 민원을 제출하기 위하여 4인 소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으며, 신천지 대처를 위해 전국 순회세미나 및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 2016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문화제 성료

정의화 국회의장에 공로패수여, 소년병출신참전용사에 국민보는 메달수여



2016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조직위원회(총재조직위원장 정의화 국회의장, 대표조직위원장 김영진 前농림부장관, 이주영 前해수부장관)가 주최하고 (사)우리민족교류협회(이사장 송기학)가 주관해 오는 6월 보훈의 달을 앞두고 참전용사 및 특별히 중·고등학교 학생 신분의 어린 나이에 국군의 일원으로 참전했던 소년병 참전용사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자 5월 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서 2016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국회의장 공로장 수여식 및 참전용사 국민보는 메달 헌정식을 가졌다.

이날 대표조직위원장 김영진 전농림부장관은 대회사에서 “본회의 명예위원장이신 정의화 국회의장의 헌신적노고와 그동안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울여주신 성심과 기여를 오래도록 기리고자 우리의 감사와 존경의 뜻을 담은 공로패를 수여해 되었다”고 말하고 금후 DMZ와 애기봉에 대한 평화의 종

을 건립키로 JSA 및 당국과 이미 합의를 했으며 광주에도 무등산에 “민중평화의 종”건립을 추진키 위해 온힘을 다해갈 것이라고 말해 큰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조직위 명예위원장이신 정의화 국회의장은 기념사에서 “부족한 저에게 온 민족의 오랜 숙원인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고귀한 헌장에 여러분과 함께 동참해 되어 매우 기쁘고 감격스럽다”고 말하고 특히 그동안 조직을 굳건히 이끌어주신 조직위원장과 이사장 이하 수고하신 여러분께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이 고귀한 민족적 당면 과제가 앞당겨 성취되도록 저 또한 더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함께 나아가겠다”고 다짐하여 큰 박수와 깊은 공감을 얻기도 했다.

이어서 우리민족교류협회의 송기학 이사장은 경과 및 주요 사업보고를 통해 “판문점에 이미 평화의종 기공식을 마친바 있으며 김포시와 함께 애기봉에 대형 평화의 종을 건립키로 합의 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참전 16개국에 타기부터 시작해서 매년 평화의 종을 건립해갈 계획”임을 소상히 밝혔다.

## 언더우드 서거 10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맥코믹 신학대학 제프리 자빙가 박사를 주강사로

세분안교회(담임목사 이수영)가 우리 사회와 교회의 문제를 ‘제자도’의 관점에서 진단해보는 제9회 국제심포지엄을 오는 5월 28일(토)과 29일(주일) 이들 동안 동교회 언더우드교육관(문화분)에서 연다.

한국 선교 및 근대화의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한 초기 선교사들의 헌신된 일생을 오늘에 비추어 성장이 멈춘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기 위해 개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시카고 맥코믹 신학대학 교수이자 저명한 저술가로 ‘가이드 포스트’ 대표 편집위원인 제프리 자빙가(Jeffrey Japenga) 박사가 주 강사로 나서 세 차례 강연한다.

5월 28일(토)에는 세분안교회 언더우드교육관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이수영 담임목

사의 환영인사에 이어 윤경로 박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이사장, 전 한성대 총장)가 ‘언더우드 선교사의 제자도: 경건, 열성, 희생 그리고 그의 삶’이란 제목으로 언더우드 선교사의 생애를 조망한다.

이어서 제프리 자빙가 박사의 제1강 ‘누가 제자인가’와 제2강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참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제자가 되는 사람의 자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합다원화사회에서 세속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법론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둘째 날인 29일(주일)에는 오후 4시 30분부터 제프리 자빙가 박사의 제3강 ‘더러운



주강사 제프리 자빙가 박사

가, 제자인가’라는 제목의 강연이 있다.

이 강연에서는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관계를 정리하게 된다.

양재회의 특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용식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부족하고 미약한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하늘을 나는 새처럼 큰 날개 짓으로 대표회장과 회원들과 함께 선교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취임예배는 계속해서 한인수 예술위원장, 이민욱 예술총감독, 박도현 예술지분위원에 대한 임명패 증정, 이진우·이응경·허수현에 대한 감사 임명패에 이어 뮤지컬 ‘갈릴리로 가요’의 감독인 이민욱과 출연자인 한인수, 박도현, 이진우, 이응경, 허수현의 감사인사가 있었다.

송종철 목사의 축도 후 열린 2부 특별순서는 개그맨 김성규의 진행으로 공연성공 기념패 증정 및 축하공연 시간을 가졌다.

## 제2회 다문화가정부모(가족)초청 행사

7개국 72명 부모님 및 국내 가족 참석



(사)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시영 목사)는 지난 6월 2일(월)부터 12일(목)까지 10박 11일간 제2회 다문화가정부모(가족)초청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6월 2일 대회 첫날 새벽 4시, 몽골 다문화가정 부모(가족)들의 입국을 시작으로 7개국 72명의 해외에서 오신 부모님(가족)들과 105명의 국내 가족 및 행사관계

자 등 약 200여 명이 인천공항 1층 입국장에 모인 가운데 나라별로 입국할 때마다 환영식을 가졌다.

오후 6시 30분, 용인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에서 열린 공식 환영만찬은 세기총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사회로 세기총 상임회장 원종문 목사의 개회기도, 한기총 사무총장 박중선 목사의 내빈소개, 행사진행위원장

박광철 목사의 행사소개, 세기총 대표회장 고시영 목사의 대회사, 한교연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의 환영사, 행사준비위원장 소강석 목사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는 사회’라는 주제의 설교, 사회자가 다문화가정 소개를, 세기총 초대대표회장 박위근 목사와 한교연 초대대표회장 김요셉 목사의 격려사, 서울시장의 영상축사, 7개국 다문화가정을 대표하여 베트남에서 시집 온 소유란 씨의 감사 인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나라별로 친정 부모님께 큰절로 인사를 드리며 부모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렸고 이어 세기총 법안감사 김춘규 장로가 다문화가정을 위한 기도 순으로 진행하였다.

둘째 날(3일)은 강환 비람과 우정관계를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을 관람했다.

셋째 날(4일)은 오전에는 용인 한국민속촌을 오후에는 남산 서울타워를 관광한 후 해외에서 오신 부모님들에게 각 개인별로 10만원의 격려금을 드렸다.

## 미래목회포럼, 이어령 박사 초청 정기조찬 강연

한국교회, 신앙회복 모색

미래목회포럼대표 이상대 목사)이 제54차 정기조찬 강연회를 열고 한국교회 지성의 아이콘인 이어령 박사를 초청하여 ‘한국교회, 영성의 길’을 모색하는 정기조찬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12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의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날 조찬은 상계감리교회 서길원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포럼에 앞서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 한국교회의 공교회성과 영성회복을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합심기도에 이어 송총장교교회 박경배 부대표가 개회기도를 했다. 서광성결교회 이상대 대표는 개회사에서 “‘미래목회포럼’은 2003년 주님이 가슴에 품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했다”며 “그간 미래목회포럼은 한국교회와 사회의 현안에 진지한 고민과 대안을 모색하며 지난 14년간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교회는 혼돈의 상황으로 마치 시대의 새벽에 서 있는 느그이”면서 “이런 때에 ‘한국교회, 영성의 길’이라는



주제 강연은 한국교회의 방향성을 새롭게 점검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또한 “침묵 같은 어둠과 혼돈 속에서도 미래목회포럼은 새로운 교회운동을 통해 이 세상 속에서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며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강연에 나선 이어령 박사는 최근 이슈가 된 ‘알파고’의 인공지능과 신앙의 ‘영성’에 대해 비교하며 이야기를 전개했다.

이어령 박사는 “구글의 알파고는 인공지능으로 유물적인 하나님을 만드는 것과 같다”면서 “인공지능인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은 다 안다”며 “알파고는 인간이 만들었지만 인간의 뇌를 모방해서 신경을 모방한 시스템이다”며 “기술의

발전이전산기에서 인터넷으로 통신기의 역할로 변화되었고, 앞으로 시대는 모든 사물에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시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기독교는 이교도와 마귀하고 싸워왔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는) 가장 큰 도전을 받는 것이 태어났다”며 “이미 우리 삶속에 스마트폰을 통해 들어와 있는 직면한 문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박사는 알파고가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영성의 길에 대해 접근했다. 그는 “인공지능은 계산이나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능 등을 할 수 있으나 소철이 나 시를 쓰는 것은 못한다”며 “인공지능 시대에는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지만 신앙이나 믿음은 대신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 행동하는 사랑으로 선교사명 감당 다짐

한국요양선교회 창립예배



한국요양선교회(회장 김성환 목사·윤양소 목사)는 지난 4월 30일 오전11시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동선교회 사무실에서 창립예배를 드렸다.

이날예배는윤문호 목사사회로 김성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환 목사는 요 13:34 말씀을 본분으로 한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택함 받은 자들이 모여 기도하며 행동하는 사랑을 실천하자”고 강조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어진 선교사명을 감당하자”고 말했다.

창립예배는 계속해서 봉헌기도에 이어 노관평·윤문호·장재호·최요셉에 대한 선교사 파송장 수여, 윤양소 목사·도성섭 목사의 권면, CBMC경기북부연합회 박동균 회장·ICS조대 원우 동문회장의 축사, 김성한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 한장총 제5회 장로교신학대학교 연합찬양제 개최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제로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백남선 목사, 이하 한장총)에서는 5월 12일(목) 오후6시에 충신대학교 대강당에서 제5회 장로교 신학대학교 연합찬양제를 개최하였다.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시110:3)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찬양제는 2012년 장로교 총회설립 100주년 기념으로 시작하여 금년 제5회를 맞이하였다.

참가팀은 충신대학교 남성합창단, 백석대학교평생교육신학원 클로리아,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국제 콘서트과이어,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Trinity Men's Chorus, 여성 에이레네 중창단, 서울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밀알중창단,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뿌라멜리 중창단, 갈빈대학교 하울렐 중창단,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The Grace 중창

단, 인양대학교 신학대학 성가대, 한영신학대학교 루미에르 총 10개 학교 11개 팀이 참여하였으며 마지막 순서로는 참가 학생 350여명 전원이 등단하여 윌리엄 스테페(William Steffe)의 승전가(Battle Field)를 합창함으로써 대미를 장식하였다.





## 싱가폴AG 총회장 은혜와진리교회서 설교

도미니 에오 목사 싱가포르 하나님의성회 총회장, 세계 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

싱가폴 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도미니 에오 목사(사진 오른쪽)는 지난 5월 8일(주일) 은혜와진리교회(담임 조용목 목사) 주일 11시 예배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들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역설했다.

도미니 에오牧사는 세계 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이며 아시아 태평양하나님의성회(APAGF) 의장으로 국제적인 선교사역을 지원하는 리더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도미니 에오 목사는 8편여 성도가 출석하는 싱가포르 대형교회중 하나인 트리니티 크리스찬 센터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 순복음반송교회 입당예배 및 임직예배

###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홍현철 목사) 순복음반송교회(담임 한순남 목사) 입당예배 및 임직예배가 지난 5월 9일(월) 오전 11시 부산시 해운대구 신반송로 동교회 새성전에서 드려져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임직예배는 지방회 재무 정영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조병희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여목부 회원일동의 찬양, 교단 증경총회장 유봉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유 목사는 막 2:22 말씀을 본문으로 '제2의 출발'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새성전 입당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충성을 다하는 교회



와 직분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어 서기 박영욱 목사의 헌금기도, 박종근 목사(은혜순복음교회)의 색소폰연주가 있었으며 지방회장 홍현철 목사집례로 명예장로 임직식이 거행되었다. 흥 목사는 서약을 받은 후 안수위원들과 함께 안

수기도, 착의, 악수례, 공포, 임직패 증정 순으로 임직식을 마치고 축하순서로 최수근 목사와 이진재 목사의 축사, 직전지방회장 한병철 목사와 도은남 목사의 권면, 담임 한순남 목사의 인사 및 광고, 꽃대발증정, 최수근 목사의 축도 순으로 예식을 모두 마쳤다.

## 총회장 진등용 목사 모친 김옥희 권사 소천

고 김옥희 권사 자녀들을 목회자로 신앙인으로 길러 내

교단 총회장 진등용 목사 모친 김옥희 권사가 지난 5월 3일(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88세인 고 김옥희 권사는 평생 굳건한 신앙인으로 자녀들을 목회자로 신앙인으로 길러 내었는 뿐만 아니라 역사의 굴곡을 뚫고 겪으면서도 신앙을 지켜낸 믿음의 산 증인이었다.

6일(목) 오전 9시 황성대성병원 장례식장에서 드려진 고 김옥희 권사의 발인예배는 교단 총무 김병목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교단 서기 이인규 목사의 대표기도, 교단 증경총회장 김인규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마 7:21-27 말씀을 본문으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아려운 시기를 지내 오시면서도 한결같은 신앙으로 자녀들 모두를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신 권사님의 신앙을 본받아 자손 만대에 이르는 복을 받아 누리려는 모두가 될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어 총회장 진등용 목사는 인사말씀을 통해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교단 증경총회장 이창재 목사의 축도로 발인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 5월 월례회 힘써 여호와를 알자

###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최동순 목사)는 지난 5월 9일(월) 오전 11시 기쁨충만교회(담임 신현찬 목사)에서 5월 월례회를 갖고 총회와 지방회, 개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격려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유병일 목사(내수평강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권영만 목사(우리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신현찬 목사(기쁨충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신 목사는 사 2:6-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지만 목회자가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인정하고 나아갈 때 사역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김지수 전도사(엘림교회)의 헌금기도와, 지난 일년 동안 지방회장으로 수고하신 김정수 목사(전지화장)에게 감사패 증정과 김정수 목사(부강순복음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최동순 목사의 진행으로 회계 민병훈 목사의 5



월 회계 보고와 재무 신병설 목사의 재무보고, 김용 목사의 총무보고와 기타 안건을 처리한 다음 교단의 발전과 충북지방회 신학교회의 부흥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 한 후 월

## 외국인선교회, 외국인 성도를 위한 의료봉사

은혜와진리교회(담임 조용목 목사) 수원성전 외국인선교회는 지난 4월 24일 세계선교센터 2층 진료실에서 아주대병원 의료진과 협력하여 외국인 성도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족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주일예배를 드린 후 진료실을 찾아 의료진들로부터 정성

어린 검진과 치료를 받았다. 이날은 특히 산임체 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선교병원을 찾아와 치열의학과 물리치료실이 시종 만원을 이루었다.



## 십자가승리교회 창립, 구속의 은혜 전파 다짐

###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김남수 목사)는 지난 5월 10일(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40번길 29-4에 위치한 십자가승리교회(담임 양현희 전도사) 창립예배를 드리고 땅끝까지의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창립예배는 박용열 목사(오성사랑교회 담임)의 사회로 김효신 목사(천양교회 담임)의 대표기도, 이만숙 집사의 특송, 지방회장 김남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골 2:12-15 말씀을 본문으로 '십자가로 승리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사역의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가는 데 있다"고 전하고 십자가의 신앙을 강조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증경회장 정석현 목사(평강교회 담임)와 최병일 목사(신행제일교회 담임)의 축사가 있었으며 김기인 목사(엘림교회 담임)와 신동숙 목사(임마누엘교회 담임)



의 권면으로 십자가승리교회의 창립을 축하했다.

정미자 목사(설교회 담임)의 헌금기도, 십자가승리교회 담임 양현희 전도사는 인사말에서 교회 주변이 유독 우상과 미신이 심한 지역이라며 팔달구 지역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기인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친 후 십자가승리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끝으로 하여 교제와 은혜기운에 창립예배를 모두 마쳤다.

##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농협 302-0928-2103-51 / 예금주 임종달

### 포토뉴스



### 64차 총회 감사위원회 수입 지출, 영수처리, 통장정리 등 확인

교단 64차 총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갑산 목사)는 지난 9일(월) 오전 11시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지난 한 회기동안 각종 회계관련 장부 및 금전출납부 등 서류를 검토하고 수입과 지출, 영수증처리 여부, 통장잔액이 잘되어 있는지 확인했다. 이날 모임은 강남지방회 김중열 목사의 지도로 시작되어 위원장 김갑산 목사 주재로 진행되었다. 김 목사는 총회에서 제출된 각종 서류들을 위원들이 서로 나누어 확인하도록 하고 수입과 지출 내역 등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하였다. 각 위원들의 서류 확인결과 회계 출납관계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각종 전표와 통장입출도 잘 정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감사서류를 최종 승인했다. 아울러 상회비 납부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아 총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높여주도록 계도를 할 것을 강조했다.



### 총회 예산위원회 65차 회기 항목별 예산배정 만전

총회 예산위원회(위원장 윤병하 목사)는 지난 5월 9일(월) 오후 2시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각종 65차 회기 항목별 예산 배정에 누락이나 비정상적인 부분은 없는지 상세히 검토했다. 이날 모임은 위원장 윤병하 목사의 개회기도 후 곧바로 회의를 갖고 1년 예산의 집중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개척교회 후원금을 비롯 각종 지원금과 운영자금의 인배를 통해 총회가 안정적으로 원할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 생명의 말씀 ■



염기설 목사

· 대전지방회장  
· 은혜와찬양교회 담임

은혜에 대해서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자기가 너무 미웠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하고 결심을 했지만 또 다시 넘어진 다음에 심각한 죄절을 겪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신에게 실망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은 실은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모습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 부분이 부족하네 하고 바꾸어 가지지 좀 더 노력해야지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태어났습니다. 뒤는다고 해서 허안 비누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타락 그제 우리 육입니다. 육에는 죽음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타락했고 완전히 죽었고 우리의 육은 여전히 육이고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 성질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나는 쏘이 아닌 비누가 될 수 있다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죄는 살인, 강간, 도둑질 등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주를 바라보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초인데 이 기초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행위를 만들어 내고 스스로 찌찍잡하며 괴롭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안 지을게요” 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다시는 주를 놓치지 않을게요”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달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듯이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며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인줄로 알고 착각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길, 진리, 생명이 되려고 합니다. 이것이 본체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관찮은 모습이라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이것을 지켜 그러면 사랑해 줄게 그러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걸으신다면 그것을 지키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한 가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붙어 있기만을 원하신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5)

가지의 역할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연결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과 연결되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이며 열매 맺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났다면 그때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겸손하고 아주 용기 있고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본래 추하고 악하고 망가지고 파괴되고 죽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 즉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가끔 저에게서 좋은 부분을

볼 때가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는 저의 모든 아름다운 부분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빌려 쓴 것입니다. 제 것이 아니고 빌려서 받은 것입니다. 또 제게서 부족함이나 잘못된 부분이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나타난다면 그 모습이 바로 저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자기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육은 절대 개선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롬 10:13)고 했습니다. 주를 부르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루 24시간 주를 붙잡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지금 모든 시작이 실패하는 것은 기도 할 때 외에는 주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옆에 계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단순히 그저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파도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들어가는지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빠졌을까요? 파도와 바람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기술되어 있으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베드로가 파도와 바람이 아닌 오히려 거북이나 물에 떠내려가는 돼지나 그 어떤 것을 보았다 해도 그는 빠졌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다른 어떤 것을 보았다는데 있지 않고 그가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물 위를 걷는 삶은 열매를 맺는 삶을 말합니다. 인간이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항상 주를 부르세요. 꿈에서도 부르세요. 저는 암투병 생활 후 밤낮으로 주를 부르며 잠이 들었어요. 주님, 주님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정복해 주세요.

그렇게 주를 붙들지 않으면 죄를 지으니까요. 사는 것이 재미가 없고 좋은 열매를 못 맺으니까요. 그저 밤새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하고 주를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 죄짓고 넘어져도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원래 어떻게 뭐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당연한 거지. 이게 원래 내 모습이지. 그렇게 툭툭 털고 일어나서 걱정하지 말고 다시 주님을 향해 가십시오. 주를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복음의 기초입니다.

제게 어느 정도 열매가 있다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루 종일 애쓰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 한 가지로 변화가 이루어집시다.

성품에 문제가 있고 대인관계가 자유롭지 않은 이들 오직 예수를 붙들므로 많은 풍성한 열매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놓치지 마세요. 돈을 잃어도 목숨을 잃어도 예수를 놓치지 마세요. 이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입니다.

간혀 지내게 되며, 이것이 삶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어 간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중독’의 의미가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과다 사용하여 금단과 내성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발생되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행동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결국 ‘인터넷 중독’도 ‘아도피’처럼,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번 맛보면 헤어내기 어렵게 빠져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앞으로 한국 교회는 디지털 중독의 문제로 심각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시대가 더해 질 것이다. 디지털 중독의 문제는 단순히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교회인의 심각한 영적인 문제이며, 치료하고 바로 잡아야 할 사안이다.

앞으로도 한국교회연론회는 사회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교회의 역할이 절실한 분야에 대하여 고민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장(場)을 마련하려고 한다.

동 정

한복운 대마도 선교대회 성료



한국복음화운동본부(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총재 이종인 목사가 4월25~26일 양일간 ‘대마도 선교대회’를 진행하고 일

본 쓰시마 이즈하라마치 텐도시계에 위치한 대마은행교회(박영철 선교사)에서 집회를 열었다.

예성 총회장에 이동석 목사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제95회 정기총회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 가운데, 작전 부총회장 이동석 목사(서울능령교회)가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됐다. 경기도 안양 상경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서 예성은 이동석 목사를 비롯한 신임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교단 내 안전을 처리했다.

미래군선교네트워크, 워크숍



군선교 전문사역기관인 미래군선교네트워크(이사장 김경원 목사)는 군목, 군선교사 및 군인가족들을 위한 ‘장병양육 워크숍 및 군인가족상담세미나’를 지난 12일 6군단 전군교회(중령 이서영 목사)에서 개최했다. 6군단 예하 군목 10명, 군선교사 25명, 군인가족 80여명이 참여한 이날 1부 예배는 김봉수 목사가 설교 말씀을 전했다.

서울신대 총장에 노세영 교수 선출



서울신학대 학교 제18대 총장으로 노세영 교수가 선출됐다. 서울신학대 학교 이사회(이사장·박용규 목사)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노세영 교수를 차기 총장에 선출했다. 노세영 교수는 오는 22일~24일 열리는 교단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후 교육부 선임 절차를 거쳐 올해 9월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노 교수는 학교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짐했다.

모든 디지털 중독은 영적 전쟁의 연장선이다

한국교회연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4월 21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4대 디지털 중독 포럼”을 개최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5대 중독(알콜, 인터넷, 도박, 마약, 성 중독)에 빠진 사람만 881만 명에 이를 정도로, 중독의 문제가 심각하다. 거기에는 게임중독, 관계 중독, 디지털 중독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한국교회연론회가 이번 4대 디지털 중독 포럼을 개최한 것은, 이런 사회적 중독 현상이 아님아님 교회 속에도 파고 들어와 교회인에 민연되어 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안을 모색하여,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중독 치료 전문가를 양성하고, 신학적 대안을 찾자는 취지로 시작하였다.

최성해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교회가 디지털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중독 치유와 더불어 올바른 디지털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있다’고 하였다.

대표 유만석 목사는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중독 현상으로 국가 미래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대처해야 할 지를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하였다.

포럼은 한국교회연론회 공동대표이며, 대변인인 이여주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음란물 중독〉에 대하여 김성 교수(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상담학과)가 맡았고, 〈게임 중독〉에는 김광태 목사(한국정보화진흥원 전문 상담사), 〈관계 중독〉에는 이동현 원장(교회정보기술연구원), 〈쇼핑 중독〉에는 이현이 소장(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스마트원터)이 맡았다.

먼저 김성 교수는 〈음란물 중독〉에 대하여, “한국사회는 소위 ‘변경의 신드롬’이 있으며,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지도층 인사들의 ‘성 관련 뉴스’가 잦아지면서, 우리 사회에 ‘성 중독’이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 모든 스마트폰 시대의 디지털 중독은 결국 음란물 중독으로 빠져드는 것”이라

고 전제하였다.

‘성 중독의 신학적 이해’는 불인해소의 비본질적 욕망을 이해하고, 중독적 현상은 영성의 상실이며, 성 중독은 죽음의 회심임을 알아, 한국교회가 전문가를 양성하고, 성 중독 연구를 다양하게 하고, 한국교회 전체 차원에서, 윤리지침 및 신학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게임중독〉에 대하여 김광태 목사는, 먼저, 세대적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과거에는 ‘공유세대’였고 현재는 ‘이미지 세대’이며, 미래에는 ‘컨텐츠 시대’라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디지털의 홍수 속에

찬양부흥회

찬양을 드리며 주님을 느끼고,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깨닫는  
은혜와 능력의 찬양부흥회

순복음신나는교회 담임목사 이후관

서울 양천구 화곡로 4길 12(구 신월5동 52-3)  
전화 02-2606-2191 (서울남서지방회 소속)



15년여에 걸쳐 약 500여 회의 찬양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주일 저녁시간(서울 경기 일원)을 원하시는 교회는 저녁 7시로 맞춥니다.  
서울, 경기 이외의 지역은 별도 상의를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10-2322-0049  
무료로 진행합니다.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서교국(국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매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신체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기들을 좀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 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과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 줄 수 있는 종교서적-성경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

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시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 기적이었던 신체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국 국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보내실 곳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1905  
e편한세상 103/801







신임 총회장 조남영 목사에게 축하회환전달



직전 총회장 진등용목사에게 축하회환전달



신구 임원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벧전 5:8)

# ‘성경적인 구원의 도리 전파에 앞장’ 다짐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5차 정기총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5차 정기총회가 지난 16일(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벧전 5:8)라는 주제 아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열려 한국교회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사명을 확인하는 한편 한

국교회에 깊숙이 침투해 오는 종교다원주의 사상과 혼합주의를 비롯 이단 사이비를 배격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본지는 65차 정기총회 광경을 화보로 엮는다 ... <편집자 주>



임원배석



기록서기



목수인수 대상자인준



각 지방회장 실행위원인준



은혜와진리교회 장로성가단의 찬양



제65차 정기총회 예배광경



## 순서를 맡은 이들 - 총회 진행순서



설교  
정책위원장 조용묵 목사



인사발  
신임총회장 조남영 목사



직전총회장 진동웅 목사



축도  
증경총회장 김상웅 목사



고시위원장 김인규 목사



신관위원장 김인찬 목사



대표기도  
부총회장 조원익 목사



성경봉독  
북한선교위원장 성경차 목사



사회  
총무 김병묵 목사



광고  
서기 이인규 목사



헌금기도  
회계 김영준 목사



특별기도1  
사회국장 김광영 목사



특별기도2  
선교국장 서정복 목사



특별기도3  
신학발전위원장 차갑선 목사



예산보고  
예산위원장 윤병하 목사



선교위원장  
심용재 선교사

## 근속패 및 감사패



30년 근속패 - 강내봉 목사



30년 근속패 - 임춘동 목사



감사패 - 신동신 사모회장



접수 및 등록하는 총회원들



정체위원장 조용묵 목사를 비롯 총회장 조남영 목사와 신임위원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일본지방회장 염순복 목사(사진 왼쪽에서 첫번째 뒷모습 보이는분, 원내 사진)와 일본지방회 증경회장 김양희 목사(왼쪽에서 두번째)

## 발언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5차 정기총회 성료

본 교단 제65차 총회에서 당선된 새 임원진

총회장



조남영 목사  
가평순복음교회

부총회장



김갑신 목사  
새여수은혜와진리교회

총무



최형택 목사  
광양은혜와진리교회

서기



홍현철 목사  
은혜총만교회

재무



조원재 목사  
풍암순복음교회

회계



안재홍 목사  
순복음만남의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우리의 현실을 바로 보게 하소서’

2016년 제11회 춘계수련회...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대표회장 유영섭 목사, 이하 예총연회는 지난 12일(목)부터 13일(금)까지 1박2일간 치악산 명성수양관에서 ‘우리의 현실을 바로 보게 하소서’(민수기 13:25-33)라는 주제로 제11회 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련회는 12일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교단별 축구대회, 저녁부흥회에 이어 13일에는 새벽예배, 특강, 폐회예배 및 기독교교회제모습찾기협의회(기교협) 229차 기도회 등 알차고 내실 있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번 수련회에서 회원들은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어 한국교회가 제 모습을 찾는데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했다.

12일 개회예배는 심민섭 목사(합동보수연합교회 총회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대표회장 유영섭 목사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유영섭 목사는 “우리에게는 삶의 순간마다, 목회의 현장마다 현실적 상황이 항상 존재한다. 다양한 문제들은 그 현실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라며 “우리에게는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직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강진명 목사(보수정통교회 총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저녁부흥회에서는 이사장 이순주 목사가 ‘성경적인 감동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또한 사무총장 변정웅 목사가 통성기도를 인도했다.

이순주 목사는 성경적인 감동관은 죽을 각오로 임하고 책임할 것이 없어야 하고 가정생활에 본이 되어야 하고 세상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령을 다루는 능력이 탁월해야 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돈에 집착하지 않



아야 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편인이 좋아야 한다고 밝혔다.

13일 새벽예배는 권용태 목사(개혁보수총회 총회장)의 사회, 김의경 목사(열린총회 총회장)의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주제의 설교, 김상봉 목사의 축도 등으로 진행됐다.

오전특강에서는 신학협의회 부회장 이항영 목사(아래총회 총회장)가 강사로 등단해 ‘21세기 영적각성을 위한 십계명’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폐회예배 및 기교협 229차 기도회는 김재환 목사(보수총회 총회장)의 사회, 기교협 회장 남윤국 목사(합동개혁교회 총회장)의 ‘사명자여 잠에서 깨어라’라는 주제의 설교, 유영섭 목사의 축도 등으로 진행됐다.

남윤국 목사는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처서 외쳐야 할 복음은 우주적인 복음이다. 인간의 사사로움 감정으로, 내 중심적 사고로 복음을 왜곡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목회

현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어떠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 강조했다.

한편 예총연회는 매년 수련회와 세미나 때마다 통성기도로 부르짖는 열심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수련회 내내 드려진 간절한 기도의 공간은 특별히 △예총연과 기교협, 신학협, 25개 총회와 4개 단체를 위해 △나라의 위정자, 안보, 경제, 민족복음화를 위해 △종교혼합주의와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입법 반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사무총장 변정웅 목사는 “우리 예총연에 소속된 교단과 단체들은 규모에 있어서는 비록 열세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망과 기도의 열심이 있어만은 그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는다”며 “이번 수련회를 통해 뜨겁게 충진된 영성으로 교단과 지교회가 질적으로 크게 변화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 태국 선교 현장에서

## 태국선교를 위한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을 기도하오며, 4월 선교편지 드립니다.

주방, 방주일학교 교실, 창고 및 침례당 공사 원공

주방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건축업자가 잠작하는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업자를 만나서 남은 공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감사했던 것은 추가 비용 없이 남은 비용 안에서 건축이 마무리 되었고, 곤란한 상황을 만날 것을 아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근 3개월 가까이 소요되었지만 지난 2월 7일 주일 오후에 성도들과 함께 주방과 주일학교 교실, 다용도실과 침례당 완공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매년 4월에 실시했던 침례식을 먼 곳에 가지 않고도 2명의 성도들에게 침례를 베풀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뒤편의 공간에 흙을 매우고 과일나무도 심고, 태국의 새해이자 물 축제 기간이었던 지난 4월 14일에는 성도들과 함께 솟발을 피워서 생선과 새우, 그리고 고구마도 구워먹으며 고향으로 가지 못한 성도들과 함께 은혜의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 년 전에 심어 놓았던 구아바 나무가 자라서 울하는 많은 열매가 맺혀서 매주 성도들과 함께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어서 또한 감사했습니다.

후원이루영교회 헌당예배

지난 2월 15일에는 후원이루영교회 건축을 위해 수고해 주신 온가족교회 최용선 목사님과 한금혜 주신 조민원 집사님, 윤경애 전도사와 신학생 1분과 함께 산죽교회에 올라가서 헌당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현지 교회와 일정 조정이 어려워서 오신 분들과 현지 목회자와 성도들 몇 명이 감사예배를 드렸지만, 기대 이상으로 건축이 잘 이루어지고, 협력하는 산죽교회들이 연합집회를 해도 될 만큼 넓고 아름다운 공간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방콕에서 12시간 걸리는 산행 길이라 멀미로 인해 고생이 되기도 하였으나 집사님 가정의 헌신을 통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사는 산죽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사내 복지법인

1년마다 구청에 법인사업보고(3월)를 하는데 올해도 잘 마쳤습니다. 큰 법인은 아니라 해도 매주 결혼 가정과 노인들을 위한 생계비와 매달 생필품과 환우를 위한 물품을 제공하고 있기에 감사드리고, 이 일이 단순히 돕는 차원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기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것은 법인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이 도움이 매개체가 되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들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할 후원자들의 손길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방콕인디옥교회 이모저모

매주 진행되는 수요일 예배와 금요일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매주 주일오후에는 두날개 양육에 이어서 일대일 양육교재를 통한 성경공부반이 개설되어 여러 성도들이 열심히 참여하여 공부에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군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새벽기도회에 소수의 무리가 모이지만 매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국은 새벽기도회가 어려운데 성도가 매일 같이 저희들과 새벽을 깨우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감사드릴 뿐입니다. 고난 주간에는 특별새벽기도회와 저녁기도회로 모여서 마가복음을 3장씩 돌아가며 읽고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족이모저모

주선이는 곧 있게 될 방학 기간에 병원에서 간호실습 과정을 할 예정입니다. 주선이는 대학 입학원서와 미비한 서류들을 내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주선이가 대학에 가면 선기 혼자 홀스쿨을 해야 할텐데 선기가 남은 과정도 잘 마무리 하고 앞길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주선이가 그동안 피아노 반주로 수고를 해주었는데 피아노 반주자를 보내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제목

- 위롯과 로스 부부와 2녀가 주님만을 경외하고 모든 일에 본이 되고, 한 마음으로 성도들과 연합을 이루도록
- 위롯과 쉼씨 부부의 택시 사업의 번창과 안전, 그리고 카센터 건축하가가 잘나오고 이후 건축이 잘 되도록
-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말씀 안에 장성한 성도들로 자리기도록 특별히 주님을 영접한 탕 할머니와 아들 썬피가 예배 참석하도록
- 주니어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대학의 길을 열어주시고, 등록금과 필요를 공급해 주시도록
- 저와 아내의 영육의 건강함을 위해

태국선교를 위한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다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하세요! 싸앗딕크람!

2016년 4월 20일

태국에서 김학봉, 서미식(주선, 주은, 선기) 선교사 드림

## 이슬람 바로알기 특별세미나

이혜훈 의원 강사, 오는 5월 27일 가평장로교회에서

가평군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성기 목사)는 오는 5월 27일 오후2시 가평장로교회(담임 정성기 목사)에서 국회의원 이혜훈 집사를 초청해 이슬람바로알기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 앞서 드려질 예배는 정성기 목사 사회로 김진호 목사(기감 증경감독)가 말씀을 최병두 목사(예장통합 증경총회장)가 축사를, 신신목 목사(기지협 대표회장)가 축도를 하게 된다.

세미나는 원종분 목사(기지협 공동회장) 사회로 20대 서초 갑 국회의원 당선자인 이혜훈 의원이 이슬람이 주는 폐해에 대해 세미나를 인도하게 된다.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평강교회 성전이전 감사예배

일시 2016년 6월 6일(월) 오전 11시 30분

장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평강교회(담임 정석현 목사)

안성시 공도읍 아촌길 9-9(구주소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 24-2)  
H.P 010-2372-0091

강사



유봉수 목사  
교단 증경총회장  
은혜 야사랑 의교회 담임

담임



정석현 목사  
경기남지방회 증경회장  
평강교회 담임





## 2016 주빌리코리아 청년대회 개최

6월 6일, 청년통일컨퍼런스 및 주빌리코리아 기도큰모임



2016 청년통일컨퍼런스와 주빌리코리아 기도큰모임 청년대회가 이번 달과 다음 달 잇따라 열린다.

한국 교회의 통일준비를 위해 기도해온 주빌리통일 구국기도회와 기독교인들을 통일 시대의 리더로 키우고 있는 송실대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가 기독교청년들의 통일시정 고취와 실제적인 통일준비를 위한 목적으로 공동 주최하는 2016 청년통일컨퍼런스는 '청년통일 공감'을 주제로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송실대 김덕윤예배실에서 열린다.

허분영 평화한국 대표가 '통일한국의 비전과 기독교청년의 사명'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전병길 한국리더십학교 팀장의 '커져라 통일 상상력', <청년, 통일하자>의 공동 저자인 김경현 형제의 '기대하라, 통일한국', 탈북청년 박오셉 요엘 대표의 '나눔으로 하나되는 통일한국'에 대해 발표한다. 이외에도 북한교회, 북한교회 세우기를 주제로 한 탈북민 지역자들의 강연도 이어진다.

강연 외에도 북한음식 체험전, 참석자들의 모든 질문을 취합하고 답변하는 'Q&A' 시간도 잡혀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 한국리더십학교, CCC통일봉사단, 반디봉사단 등 22개 청년단체와 지역교회 북한선교부 및 청년모임 등에서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음달 6일 오전 11시부터 송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는 2016 주빌리코리아(주요) 기도큰모임 청년대회가 열린다. '청년, 통일코리아의 가치를 돌려'를 주제로 열리

는 이번 대회엔 김승욱 목사(할렐루야교회)가 주강사로, 탈북청년 지성호 나우 대표가 간증을 한다.

대회 장소인 한경직기념관 마당에서는 통일사역단체들의 사역박람회, 북한 관련 시전전시회도 열린다. 청년대회가 끝난 7월 25일부터 28일까지는 한동대에서 2016 주니어 청소년 통일캠프가 1천여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진행된다.

한편 지난 7일 주빌리 63개 참여단체장과 지역대표자들은 모임을 갖고 대회 준비를 논의했다. 2016년 주교준비위원장 이상숙 권사는 "시대가 정체되어 있고 상황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은 늘 청년을 통해 새로운 길을 내셨다."며 "한국교회와 이 땅의 청년들을 일으켜, 함께 통일 준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교회 없는 통일의 있을 수 없는 것 처럼, 청년이 빠진 통일은 통일이 아니며, 청년을 포기한 나라는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통일코리아의 가치를 받들듯이 들어가 한다"고 강조했다.

이 권사는 또 "2016 청년통일컨퍼런스와 주요 기도큰모임 청년대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꼭 막힌 남북관계에 송풍을 타고, 청년들과 함께 통일의 문을 열어야 한다며 통일코리아의 확산과 소망을 분명하게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대회 관련 문의 : 이관우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 사무총장(010-4622-4691)

###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지역 교회 목사님들의 소개로 '가족세트전도아카데미' 강의를 듣기 위해 '평내순복음교회'의 성전으로 들어가 보니 동영상을 통해 전도 현장의 모습을 확인시켜 주고 있었다. 참으로 놀라운 현장의 동영상을 보면서 한 없이 교만하고 강박한 현대인들의 머리를 거침없이 안수를 하며 영접을 시키는 주인공이 과연 누구일까 궁금하여 교회 내부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현수막에서 박영수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너무나 놀라고 말았다.

14년 전 내가 집사였을 때, 경기도 광주 퇴촌에 있는 퇴촌감리교회에서 신유와 전도를 위한 특별집회를 순복음교회 박영수 전도사를 강사로 하여 열린다는 소문을 듣고 안 전단을 받고 고동소리위하는 친구를 부축하여 함께 그 집회에 참여했었다.

친구의 치료 목적을 위해 가장 앞자리에 자리를 잡고 두 손을 들어 간청하며 기도하면서 집회 안에서 일제히 하는 성령님의 은혜가 박영수 강사님을 통해서 흐르기 시작함을 체험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면서 영혼의 심층적인 곳에서 분출되어지는 사람의 감동으로 몸부림치는 통곡을 하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시작했다.

또 집회 마지막 시간에는 그 시간의 본문을 가장 먼저 읽는 사람이 일어나서 봉독하라는 말씀에 성경을 열었는데 그 본문이 바로 보아 일어나 봉독을 했다. 강사님은 그런 나를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면서 전도에 필요한 말씀 책자를 건네주시면서 '집사님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전도자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었다.

그 집회를 마치고 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

의 모태에서 생성하시기 전에 섭리가운데 계획하셨던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일깨워 주셨다는 은혜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나는 죽을 고비에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운명적인 경험이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부담감을 크게 느끼면서도 그 약속을 미루면서 실천하지 않으며 적당히 종교생활에 만족하며 살아오던 중 박영수 목사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던 것이다.

그 집회 이후 새벽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게 되었고 자비량으로 전도용품을 구입하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노방, 가가호호방문, 병원, 학교, 노인정을 방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 과정 중에 아들은 신학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저 또한 기독교대한감리교단 소속 협성대학교에 3학년으로 편입하여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었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 지구촌선교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있다.

14년 전에 내 인생을 복음 전도자로 전환하게 했던 잊을 수 없었던 성령의 능력 전도자였던 박영수 목사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 생각이 된다.

예배를 마치고 일행과 함께 '가족세트전도 현장'으로 나가 1시간 만에 20명 이상을 영접기도를 시키시고 전화번호와 집 주소를 받고 심방 약속까지 받는 모습을 보았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실증되는 기적의 전도현장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박영수 목사님을 14년 전에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였고 지금까지도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현시켜 나가며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데 능력있게 사용하고 계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이제 내가 섬기고 있는 지구촌선교교회에도 능력전도 방법인 '가족세트전도' 방법을 적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능력 있게 쓰임 받게 될 것을 확신하며 기대한다.

먼저 박영수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전도의 기적의 현장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능력의 전도자 박영수 '가족세트전도아카데미' 학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증자 : 황천호 목사 지구촌선교교회 담임

동영상: <http://blog.naver.com/bo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692-4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 제2회 전국 고등학생 영어간증대회 성료

ACTS 주최 김서영·표신희·박수아 학생 등 8명 수상

제2회 전국 고등학생 영어간증대회가 지난 5월 7일(토) 경기도 양평군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ACTS)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 믿음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자기 비하를 극복하고 자존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간증한 김서영 학생이, 소망상에는 대인교류를 다니며 선배와 친구들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였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소개한 표신희 학생이, 사랑상에는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는 것을 통해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되었고 미래에는 복한을 위한 선교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한 박수아 학생이 받았다. 그리고 다섯명의 학생이 장려상을 받았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을 또래 친구들과 함께 나누며 다시 한번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 루터대-송실대 CR글로벌리더십연구소, 업무협약

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학술교류

루터대학교(총장 김영욱)와 송실대CR글로벌리더십연구소(소장 최은수)는 지난 5월 9일 오전 11시 용인시 소재 루터대학교 회의실에서 양 기관의 인성교육 및 리더십 교육과정 개발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양 기관의 학술 교류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두 기관은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인성교육 및 리더십 교육과정 개발 △CR(Compassionate Rationalism 온정적 합리주의) 리더십의 활용 △우수 강사 인력풀 공유 △학생 및 교직원 리더십 연수 프로그램 개발 △양 기관의 추진 사업 및 행사의 홍보 △양 기관의 방문 및 시설 사용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영욱 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루터대 부설 인성교육원(원장 이병호)의 인성교육사 단기 양성 과정 프로그램 및 향후 개설될 교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지도사 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송실대학교 CR글로벌리더십연구소의 전문 인력과 협업 등 역할이 기대된다"며 21세기 창조와 사회에 걸맞은 창의 인재 육성에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 남일공예

50년 전통의 남일공예 입니다.

남원 전통상, 목기, 교자상, 찻상, 병풍 판매합니다.

본 제품들은 남일공예에서 직접 생산하여 도매로 판매합니다.

좋은 원목으로 모든 공정을 남원에서 직접 제작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상 주문제작  
생산자 직거래라 비용이 저렴합니다

오시는 길 전북 남원시 쑥고개로 219(어현동 470-16)

상담전화 063-632-3332, 8838 / 010-3651-7838 택배판매 가능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 130819-중-47402호

YONSEI NANUM CLINIC

피부 · 성형 · 비만 클리닉

# 연세나눔의원

진료내용 1.색소클리닉 2.여드름클리닉 3.흉터클리닉 4.비만클리닉 5.성형외과(쌍꺼풀수술, 코수술, 지방흡입, 지방이식)

월 · 수 · 금요일 야간진료 오후 9시까지

(02) 2666-3616 우장산역 4번출구 미즈메디병원 옆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01-10 호경빌딩6층 [www.shareclinic.com](http://www.shareclinic.com)





# ‘총회주일’ - ‘교단역량 결집’

5월 15일(주일) 전국서 헌신 다짐

제58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 결의에 따라 지난 주일(5월 15일) 교단 산하 전 교회가 말씀을 통해, 성찬예배를 통해, 크고 작은 행사를 통해, 찬양을 통해 총회주일을 기념하고 특별히 소속된 교단 총회를 위한 교회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전 성도들과 함께했다.

특히 총회장 진등용 목사는 “62차 총회에서 교단 총회 주일로 변경하여 정한 5월 셋째주일을 총회주일로 지켜 우리가 소속한 교단총회를 위해 기도”를 요청하고 “신의성실을 무기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교역자들과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강조한 뒤 교단 총회를 위한 헌신을 당부했다.

전국교회에서 일제히 지켜진 총회주일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바탕 한뜻으로 교단

산하 전 지방회와 교회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

본 교단은 2007년 10월 한국과 세계에 교단의 대통합을 알린 데 이어 2008년 5월 통합교단을 출범시켰다. 많은 회원 교회들이 뜻을 같이해 주었고 안정적인 발전을 다져가고 있으며 고질적 교단의 병폐였던 밀실정치를 뿌리 뽑고 정책 총회로 발돋움하게 되었고, 한국 교회에 교단통합의 새로운 모범을 보이게 되었으며 명실공히 한국 교회 중심교단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전국 교회가 하나 되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준 것이 커다란 발판이 되었음에 기인한다 할 것이다.

총회는 5월 셋째주일 총회주일이 총회원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총회발전의 계기가 되었음을

믿는다.

이제 전국교회는 각기 형편에 따라 총회주일 헌금에 적극 동참, 우리 교단의 총체적 역량을 집결하여 결집된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이 헌의 결집에 이미 많은 교회가 참여한 데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앞으로 모든 교회가 적극 동참하여 교단 발전과 하나님 나라 건설의 주체가 되어 주기를 교단 총회는 기대하고 있다.



## 교회와 교단의 부흥 위해 기도로 헌신

전국사모연합회 제6차 정기총회 개최



신임 사모회장  
차추련 사모

전국사모연합회(회장 신동신 사모)는 지난 16일(월) 오후 2시 은혜와진리교회 아가페성전에서 제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한 회기 동안 사모들의 발전과 교회와 교단의 부흥을 위해 기도로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총회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는 사모회장 신동신 사모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차추련 사모의 기도, 서기 오숙희 사모의 성경봉독, 교단 부흥사회장 신재영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신 목사는 롬 1:15-16 말씀을 본문으로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복음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사모의 귀한 직분을 말씀과 기도로 감당해야 함”을 강조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한해 복음을 전하는 자랑스러운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고 한 회기 동안 헌신한 임원진들과 회원들을 격려하고 축복했다.

이어 회계 조정에 사모의 헌금기도 총무 박경미 사모의 광고 신재영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곧바로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각종 보고사항을 받고 임원선출에 들어가 신입회장에 차추련 사모를 선출했으며 일부 임원진을 개설했다.

회장 차추련, 부회장 한은정, 이은숙 총무 박경미, 협동총무 김숙향 서기 오숙희, 부서기 박경선, 회계 조정에, 부회계 김숙자, 재무 김귀순 감사 신명희



설교  
부흥사회장 신재영 목사



직전 사모회장  
신동신 사모



제6차 전국사모연합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신임원진

## 벨엘추모공원 건립기념 감사예배



하나님께 순종한 고인들의 영원으로 가는 안식처인 동시에 가족과 성도들이 찾는 천만인 기독교인들을 위한 기독교추모공원 건립감사예배에 귀하를 초청합니다.

- | 일시 | 2016년 5월 26일(목) 오전 11시
- | 장소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532-3
- | 주최 | 벨엘메모리얼파크
- | 후원 |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 | 전화 | 1544-0442 (멤버쉽가입도 문의)





##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임석순 목사 // 한복합 중앙위원, 한국중앙교회 담임

## 행하고 가르치는 스승

스승은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같이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삶은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행1:1,2〉 “데오빌로여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  
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  
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겨울철에 길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눈이 많이  
내린 날에는 앞서 간 누군가의 발자국이 있으면 고  
마운 생각이 듭니다. 그 발자국만 따라 가면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승의 길이란 이렇게 길  
이 보이지 않는 곳을 위험을 무릅쓰고 가장 먼저 가  
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  
인이 가야 할 길입니다. 선생은 다만 먼저 태어나고  
먼저 배운 것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스승  
은 앞서서 길을 가는 사람이며 사명에 의해 삶을 통  
하여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은 안타깝게도  
선생은 많은데 스승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학교나 교회나 그리고 사회도 스승이 있어야 이 세  
상은 밝아집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스승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 땅의 스승이 되라고 말  
씀하십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승을 통해 꿈을 키우  
기도 하며 용기를 얻기도 하며 신념의 기로에서 답  
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러한 스승  
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들 합니다. 우리는 삶에 영  
향을 끼치는 진정한 스승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  
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참된 스승이 되어야 합  
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스승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  
하고 분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몇몇 통계자료가 보  
여줍니다. 1996년과 2005년의 종교분포도를 비교  
해본 결과 가톨릭은 성장비율이 74.4%인데 반하여  
기독교는 -1.6%였습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기독교  
를 신봉한다는 사람이 18.4%였는데 그 중에서도 비  
기독교인은 6.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종교  
를 택할 것인가? 묻는 질문에 불교는 46.2%, 가톨릭  
은 43.1%인 반면 기독교는 27.3%였습니다. 도대체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기독교가 참 종교  
가 아니어서 인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길  
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  
에는 없습니다. 기도가 없어서 인니까? 전도하지 않  
아서 그렇습니까? 봉사가 없어서 인니까? 아닙니  
다. 예전보다는 못하지만 지금도 밤을 새워가며 열  
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또한 더운 때나

추운 때나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는 성도들도 많습  
니다. 그리고 그 어떤 공동체도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기독교는 봉사와 헌신에 남다른입니다.

그런데도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  
는 이유는 바로 스승이 없어서입니다. 수많은 많은  
목사가 배출되고 박사 학위를 취득한 목사도 많은  
오늘날 왜 스승이 없습니까? 왜 기독교는 세상의 스  
승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스승은 단지 가르치는  
역할만 하는 사람이 아니며 경향이 많고 지식이 많  
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행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스  
승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스승으로 오신 주  
님은 우리에게 스승으로서의 본을 보이시면서 너도  
이렇게 행함으로 스승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신앙  
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하는 자는 없습니다.  
행하는 자가 없으니 스승이 없습니다. 스승이 없으  
니 기독교라는 공동체는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입  
니다. 알기는 하는데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나 할  
것 없이 이기적, 자기중심적이고 그 안에 사랑이 없  
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  
을 씻기셨습니다. 유다가 은 삼십에 주님을 팔 것かと  
제자들이 배반하고 떠날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셨지  
만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기에 끝까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십자가의 고통을 앓고  
고 주님 안에 갈등이 없었을 리 만무하지만 주님은  
사랑으로 내적인 갈등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길을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  
었던 것은 유대를 보면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  
지 못하는구나! (요 13:7)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  
다. 또한 유다 안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를 조종하고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오해한 유대를 불쌍히 여  
기셨고 마귀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반드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겠다는 각오를 하시고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 고  
통의 상황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  
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용납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  
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웃 유대와 같은 사람도 있  
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처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가 알지 못해서 그렇구나.’ ‘저 안에 마귀가 역사해  
서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되고 거룩한 분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  
입니다. 그리고 고통에 처하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길  
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상황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행하는 자가 되고 스승  
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라야 5:9, 예수님의 제자라야 (요 13:35) 열매를 받는  
복을 얻게 됩니다. 교회들마저 잘못을 바로 잡겠다  
고 정의를 세우겠다고 서로 싸우며 세상 법정까지  
가는 요즈음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진정한 정의는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의 복은 생  
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복입니다. (요일 4:12) 사랑할  
때 생명의 씨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도를 해도, 전도해도, 봉사해도, 그  
어떤 헌신을 한다 해도 결국 죽은 것이며 생명을 일  
으킬 수 없습니다. 또한 평안의 복을 얻게 됩니  
다. (요일 4:18)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  
니다. 당장 내일 십자가를 진다 해도 두려움이 없습  
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심판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스승으로 보냄 받은 자입니  
다. 스승은 행하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행할 수 있으  
려면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를 볼 것이 아니라 그를  
조종하고 있는 마귀를 보며 그가 알지 못해서 그런  
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한 그 상황이 우리의 사랑인  
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  
음을 받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두려움에서 벗  
어나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스승은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같이 아  
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하고 있었  
는지 모르지만 삶은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기독  
교인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  
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다른 사람  
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다는 찬송을 아무리 불러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서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회칠한 무덤이  
고 종교에 불과합니다. 평안함도, 용서도, 기쁨도 마  
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가르치시면서 삶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의 스승으로 보내셨  
습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모두 삶이 가르침이  
되는 스승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  
파되기를 바랍니다.



## 사설

## 교단의 새 임원진의 출범을 축하하면서...

교단 제65차 성총회가 성대히 거행되어 향후 1년간  
교단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새 임원진이 구성되었다.  
시대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새롭게 선출된 임원  
들은 막중한 시대적 사명을 어깨에 짊어지게 되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마음으로 총성과 봉사의  
시명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지금 한국교회는 새로운 성장세의 문화와 신뢰도  
추락 등 격랑의 파도에 직면하여 이를 능히 헤치고 나  
아 갈 자해와 추진력이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사본오열된 한국교회를 이단 사이버세력으  
로부터 보호해야함은 물론 연합기구의 통합과제와 교  
회내에까지 깊숙이 침투해온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세력과 맞서워야 하고 심추된 한국교회의 신뢰회복을  
위해 교회 본래의 자세인 거룩함을 회복하므로 무너진

신뢰를 복원시키는 중차대한 사명을 부여받았다. 그동  
안 한국 교회에 바른 복음을 전파해온 우리 교단은 세  
상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진실과 공의의 바탕 위에  
세워진 교단의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교단의 내부적 행정과 제도를 새로이 정비하여 화합,  
발전, 도약의 총회로 만들어 일대 진보를 실현하는 한편,  
교단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이어가고 범 교단적인 행사  
에도 적극 참여하여 교단의 위상을 높이는 한 화기가 될  
것이다.

2016 새 임원진이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  
하게 회복되게 하는 역사를 위해 피땀을 흘려주시므로  
거룩함으로 변화되게 하는데 초석이 되어 주시기를 바  
라고 또 회회 모두는 이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에 주시  
기를 당부한다.

## 박원순 시장, 동성애자 ‘퀴어축제’ 즉시 불허하라!

서울시가 또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의 광  
란 행사인 ‘퀴어문화축제’란 것을 6월 11일 개최할 수  
있도록 장소 사용을 허가하였다. ‘퀴어문화축제’라는  
것은 동성애 조장을 선동하는 반인륜적이고 반시민적  
인 행사이다. 그럼에도 박원순 시장이 행정권을 발동  
하여 불허 조치를 하지 않고 또 다시 허용한 것은 박  
시장의 양심과 도덕적 이념이 과연 정상적인가를 의심  
케 하는 조치라 아니할 수 없다. 박 시장은 가슴에 손  
을 얹고 창조주와 신의 질서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고  
참회한 다음 즉시 ‘퀴어축제’란 것을 할 수 없도록 장  
소사용하기를 철회해야 마땅하다.

서울시 측은 413총선거 전에 장소사용을 불허할 것  
처럼 발표했으나 총선일이 지나자 즉시 허가를 발표하  
여 선거를 위해 속임수를 쓴 직후에 농후하여 더욱 시민  
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우리는 박원순 시장이 ‘차별 금  
지’라는 이유를 거론하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음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왜  
냐하면 그는 천만이 넘는 서울 시민의 민생을 보호하고  
시정을 집행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그의 행동 하나로 인  
해 자칫 엄청난 물심양면의 피해가 초래될 수도 있기 때  
문이다. 앞서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대표:이건화)와 탈  
동성애인권포럼(대표:이요나) 외 37개 단체들은 421.서  
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박 시장은 서울광장

사용이 신고제이기 때문에 사용 신고가 들어오면 승인  
할 수밖에 없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며 “서  
울광장조조에 서울시장은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  
해하거나 영리 목적의 광고·판매행위,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서울광장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서울광  
장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은 지  
난해 서울광장에서 있었던 불법적인 행사 내용을 너무  
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또다시 광장사용을 승인함으  
로써 시장의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  
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동성애자들의 ‘퀴어축제’란  
것은 반나체 행위나 동성 간 성행위 조장 행동 등 혐오  
행위를 자행하여 보는 이들의 수치심을 안겨주는 등  
탈법행위를 자행해 비난을 받아온 바 있다.

동성애 규탄 시민단체들은 또 ‘퀴어축제’를 하는  
6.11부터 한주일 간 올바른 성문화 회복을 위한 ‘홀리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국민들에게 동성애의 폐해와  
탈동성애운동의 중요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도 이 행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5월 중 ‘한국교회 지도자 각성대회’를  
열고 동성애 확산 및 탈법화 저지를 위해 기도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들의 수고와 노력에 한국교회와 성도  
들의 간절한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바란다.

##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오목 목사
- 발행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150-1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 다메섹교회 새성전 입당예배

강사

담임

정부용 목사  
교단 정책위원  
대림뽕엘교회 당회장이원정 목사  
다메섹순복음교회 담임

일시

2016년 6월 18일(토) 오전 11시

장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다메섹순복음교회(담임 이원정 목사)

경기도 광주시 현산로 130-40(초월읍 도평리 6-1) 031)765-2791, (010)6202-6312






설 교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담임  
교단 정책위원장



**조남영 목사**  
가평순복음교회 담임  
교단 총회장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5차 총회

# 총회장 조남영 목사 취임 감사예배

초 · 대 · 의 · 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금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님과 증경총회장님들을 모시고 총회장 취임감사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총회원 여러분들을 초대하오니 바쁘신 중에도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 광고 지면으로 초대장을 대신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일시** 2016년 6월 2일(목) 오전 11시

**장소** 가평순복음교회(담임 조남영 목사)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새말옛로 6번길 3  
교회 : 031)582-2835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을 오해했다!” 잘못 알고 오해했던 ‘성령론’을 바로 잡는 책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서

당신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동안 한국 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 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린 채 은사주의, 변영신학으로 번져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 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왜 다시 ‘성령론’인가?**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읽혀지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였다. 그럼에도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에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어 같은 교단이라 해도다른 견해를 가지고 온다.

‘성령세례’와 ‘방언’, ‘신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왜곡될 경우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빠질수 있기에, ‘성령론’의 연구와 올바른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은 성령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령은 힘이아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경은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고, 이는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지성과 감정의과외를 가지고 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시다. 이밖에도 ‘성령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은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등,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는 이 책의 균형 잡힌 안내를 통해 한국 교회의 성숙과 뜨거운 성령 충만의 회복을 기대한다.

**저** 조용목 목사

**자** 최완기 목사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써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한국신학회 이사장, 세계 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이다.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윈도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조남영 목사  
가평순복음교회



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별교회



자문 신동숙 목사  
순복음임마누엘교회



국장 탁정신 목사  
온선교회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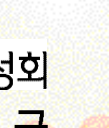


# 전국여교역자국

교단 제65차 정기총회가 은혜가운데 성료됨을 감사드리고 총회장 조남영 목사님과 신임원진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조직

임원단

전국지부장

차장	기획실장	행정부장	섭외부장	경조부장	예배부장	홍보부장	행사부장	복지부장	사회부장	선교부장	봉사부장
 순복음중앙교회 김효신 목사	 일신별교회 조영란 목사	 추계교회 김한애 목사	 기정순복음교회 조병목 목사	 희복의순복음교회 김순자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김바울 목사	 순복음민송교회 한순남 목사	 예준순복음교회 최명호 목사	 순복음경동교회 이경자 목사A	 군현순복음교회 김종애 목사	 순복음침중교회 조은주 목사	 순복음기쁨과기쁨의교회 이명순 목사
 사랑과평화교회 송현자 목사	 순복음사랑교회 이현욱 목사	 예수왕교회 정에스더 목사	 빈석교회 신은순 목사	 온누리순복음교회 최금자 목사	 행복한순복음교회 김정순 목사	 협문신교회 김남순 목사	 믿음교회 이경자 목사B	 동성한생명교회 서석자 목사	 순복음성광교회 김인희 목사	 순복음광강교회 설자 목사	 임마누엘교회 이정애 목사
 강원동지방회 지부장	 강원서지방회 지부장	 대전지방회 지부장	 충북지방회 지부장	 충남지방회 지부장	 청주지방회 지부장	 경남지방회 지부장	 영남동지방회 지부장	 부산지방회 지부장	 광주지방회 지부장	 전북지방회 지부장	 전북서지방회 지부장
 성광교회 최경호 목사	 바울기도원 정희자 목사	 대화순복음교회 안선자 목사	 대청신기도원 임연일 목사	 솔로몬순복음교회 권옥자 목사	 행복한순복음교회 김문자 목사	 동명순복음교회 김덕숙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이순애 목사	 순복음빛교회 조은혜 목사	 순복음배영리 목사	 성령일교회 임성애 목사	 임마누엘수영교회 심혜원 목사
 북동순복음교회 백영자 목사	 순복음동신교회 정복래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심연숙 전도사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전국여교역자국

국장 탁정신 목사